

'차붐' 넘어 한국인 유럽 통산 최다골

손흥민, UEFA 챔피언스리그서 멀티골... 122·123호골
토트넘, 4-0 완승 거두면서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조2위



손흥민(토티넘)은 7일 새벽 5시(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4차전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2분과 16분에 연속골을 넣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티넘)이 2019~2020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차붐 근 진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 기록을 넘었다.

손흥민은 7일 새벽 5시(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대회 B조 조별리그 4차전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2분과 16분에 연속골을 넣었다.

차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121)과 타이틀을 이뤘던 손흥민은 통산 122·123호골을 기록하며 전설을 넘어섰다.

현역 시절 '차붐'으로 불린 차 전 감독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을 거치면서 121골을 퍼부었다.

손흥민은 18살 때인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해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여름 잉글랜드에 진출했다.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햇수로 딱 10년이 걸렸다.

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5호골이자 시즌 7호골이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4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플레이가 원인이 돼 안드레 고메스(에버턴)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정상 컨디션 을 보여줬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우려됐지만 2골로 벤치의 걱정을 털어냈다. 손흥민은 이날 골을 터뜨린 후, 고메스의 회복을 기원하듯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토티넘은 4-0 완승을 거두면서 2승1무1패(승점 7)가 됐다. 바이에른 뮌헨(승점 12·독일)에 이어 조 2위를 지켰다.

전반 34분 로셀로의 선제골로 전반을 1-0으로 마친 토티넘은 후반 초반 손흥민의 연속골

로 승기를 굳혔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2번째 골을 넣었고, 4분 뒤에는 로즈의 땅볼 크로스를 가볍게 밀어 넣어 멀티골을 완성했다. /뉴시스

핸드볼협회, 10연속 올림픽 출전 여자팀에 포상금 2억원

대한핸드볼협회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여자대표팀에 포상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

핸드볼협회는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여자대표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최태원 협회장을 대신해 선수촌을 찾은 길병승 부회장은 포상금 전달과 함께 이날 말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강재원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에게 총 2억여원이 지급됐다. 선수에게 돌아간 몹은 1인당 1000만원이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 시작으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된 여자대표팀이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남녀 핸드볼을 통틀어 최다다.

스페인 남자대표팀이 9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다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연속 출전 기록이 중단됐다.

또 한국 구기 종목 중 가장 먼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됐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고, 외에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최 회장은 "여러분은 핸드볼의 역사, 현재의 주역, 미래 후배들의 희망이다. 정말 수고했다"며 "앞으로도 협회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즐겁고 행복한 핸드볼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달 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보다 체력과 체력이 훨씬 뛰어난 유럽 선수들과 힘겨운 경기가 되겠지만, 물러서지 않고 부딪히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감동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임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보였다. /뉴시스

'젊은 피'의 패기, 야구국대 형님들도 깜짝

한국, WBSC 프리미어12서 호주에 5-0 완승
양현종 "선수들, 긴장하지 않고 자기 플레이"
최정 "나이만 많은 내가 많이 배운다" 칭찬

히하는 선수"라며 "이번 대회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라고 치켜세웠다.

이정후는 이날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2루타 2개를 때려내는 등 4타수 2안타 1타점 1볼넷으로 맹타를 휘둘

렸다. 비단 이정후 뿐 아니다. 7회 2사 3루에서 대타로 나선 강백호(20·KT 위즈)는 차분하게 볼넷을 골라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이영하(22·두산 베어스)도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를 경험하며 양현종은 국가대표 에이스로 자리잡은 양현종은 "나도 국제대회를 적게 한 편이 아닌데, 이번 대회를 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의욕 넘치게 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뿌듯하다. 앞으로 남은 국제대회가 기대될 정도"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3루수 최정도 젊은 선수들에 놀라고 있다. 최정은 대표팀의 분위기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중심에는 밝은 후배들이 있다.

최정은 "후배지만 배울 점이 많다. 누구 한 명을 짚기도 어렵다. 정우나, (김)하성이, 백호 등 후배들이 전부 열정이 많고, 활기가 넘친다"며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자신감이다. 어린 선수들인데도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 나이만 많은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 몸을 낮출 정도다.

이번 대표팀은 연령 자체가 높지 않다. 최고참이 2005년 프로에 입단한 박병호(33·키움 히어로즈)와 최정(32·SK 와이번스)이다. 막내는 프로 2년 차의 강백호다.

나이는 어려도, 실력으로 이미 인정

을 받은 선수들이다. 이정후와 김하성(24·키움)은 이미 대표팀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단 이영하, 고우석(21·LG 트윈스) 등 20대 초반 선수들도 주축 불펜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담이 큰 국제대회지만, 주눅들지 않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는 대표팀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을 보는 선배들도 새로운 자극을 받는 모양새다.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노리고 있는 대표팀에는 또다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셈이다. /뉴시스

더 나은 부안, 내일 더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귀담아 들겠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1.12(화) ~ 12.12(목)

20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의안 심의

부안군의회